광주FC, 질주 시작된다… 싸움은 지금부터

K리그1 9라운드 제주 상대 3-1 승…6일 홈서 대전과 경기
엄지성 '올림픽 탈락' 아픔 딛고 마수걸이 골…6연패 탈출

광주FC가 지난 1일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추가 시간에 나온 엄지성의 페널티킥을 앞세워 3-1 승리를 거두고 6연패에서 탈출했다. 사진은 엄지성이 슈팅을 시도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광주FC의 질주가 다시 시작됐다.

광주가 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의 K리그1 2024 9라운드 경기에서 3-1 승리를 거뒀다.

3월 10일 강원전 4-2 승리로 개막 연승을 기록한 뒤 6연패의 부진에 빠졌던 광주는 길었던 패배를 뒤로하고 5월을 승리로 열었다.

'올림픽 탈락'의 아픔을 딛고 광주 공격 전면에 선 엄지성이 승리의 주역이 됐다.

전반 28분 왼발로 날린 공이 골키퍼 김동준 품에 안기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엄지성이 전반 추가 시간 골 세리머니를 했다.

공을 몰고 상대 박스로 진입한 엄지성이 상대에 걸려 넘어졌다.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직적 키커로 나선 엄지성이 오른발로 침착하게 슈팅을 하면서 제주의 골망을 흔들었다.

시즌 5번째 경기에서 나온 엄지성의 마수걸이 골이다.

엄지성은 4월 1일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대표팀에 소집됐고, 인도네시아와의 8강전이 패배로 끝나면서 4월 27일 귀국길에 올랐다.

귀국과 함께 바로 팀에 합류한 엄지성은 제주로 건너가 팀 연패 탈출 전면에 섰다.

엄지성의 페널티킥골로 리드를 잡은 광주는 후반 6분 추가골을 기록했다. 코너킥 상황에서 두현석이 왼쪽에서 환상적인 크로스를 선보였다. 포물선을 그린 공이 골대 앞에 있던 제주 이탈로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후반 24분에는 이희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중원에서 넘어온 공을 잡은 가브리엘이 오른쪽 측면을 파고든 뒤 골대 앞으로 달려들던 이희균에게 패스를 했다. 이희균이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제주 골대를 가른 뒤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이희균의 시즌 3호골과 가브리엘의 첫 도움이다.

후반 26분 제주 안태현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이 골로 이어졌지만 광주는 리드를 내주지 않았다.

후반 45분 제주 조나탄의 헤더가 골대를 맞으면서 가슴을 쓸어내린 광주는 7분의 후반 추가 시간을 실점 없이 버티면서 기다렸던 승리를 만들었다.

이정효 감독은 "많은 팬들이 원정을 와주셨다. 6연패를 끊었다. 선수들과 팬분들께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6연패 할 때 구단주인 강기정 시장님이 친필로 편지를 직접 전달해주셨다. 나와 선수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주셨다. 그 기운으로 더 힘이 났던 것 같다"며 "선수들 힘들었지만 투혼을 다해 최선을 다해줬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승리 소감을 이야기했다.

이날 승리로 6연패를 끊고 최하위에서 탈출한 광주는 5월 6일 오후 4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로 연승에 도전한다. 대전은 광주에 승점 1점 차로 앞서 10위에 자리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전남, 전국레슬링대회서 메달 휩쓸어

광주체고 18개 등 54개 획득
전남체고 14개·체중 5개 등

광주·전남 레슬링팀이 전국레슬링대회에서 선전했다. 특히 광주체고는 대회 고등부 경기에서 총 18개의 메달을 싹쓸이 했다.

광주체고는 최근 장흥에서 끝난 '제2회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배 전국레슬링대회 대회'에서 금6개, 은4개, 동8개를 획득했다. 자유형 단체 준우승도 이뤘다. 〈사진〉

그레코로만형에서 신정훈(51kg), 강승민(55kg), 이재혁(97kg)이 금메달을 따냈다. 자유형에서는 정승민(65kg), 백주안(F97kg)이 1위에 올랐다. 여자 자유형 임선교(76kg)도 각 1위를 차지했다.

광주체고 레슬링팀 한태산 감독교사는 "학생들이 열심히 잘 따라와준 덕분에 좋은 성적을 낸 것 같다" 며 "평소에 자신감을 많이 불어 넣어주려 한다. 올해 세 번째 시합이었는데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이 잘 채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회 초등부에서는 삼각초 송도윤이 자유형 + 60kg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중등부에서는 광주체중이 총 8개의 메달(금4, 은2, 동2)을 획득했다. 송정중은 은4개, 동2개, 금구중은 은1개, 동1개를 획득했다.

전남에서는 전남체중이 동메달 5개, 함평중과 해남중이 동메달 1개씩 수확했다.

전남체고에서는 금3개, 은4개, 동7개가 나왔다.

대학부와 일반부에서도 광주·전남 선수들의 활약이 이어졌다.

조선이공대가 금1개, 은4개, 동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광주남구청 레슬링팀은 자유형에서 이경연(86kg)과 서영채(74kg)가 금메달을 수확하는 등 금 2개, 동1개를 획득했다. 광주시체육회 레슬링팀은 금1개·은2개·동1개, 전남도체육회는 은메달 1개를 따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전남장애인체육대회 폐막…종합 1위 여수시

지난 1일 제32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 1위~8위 수상자들이 폐막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장애인체육회 제공〉

육상 3관왕 황상준…최우수선수상

제32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가 1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영광에서 지난 4월 29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이번 체전에는 22개 시·군 1만5000명이 21개 종목에 참가해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1일 영광스포티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폐회식은 '환희와 감동의 순간들'이라는 주제의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성적발표, 종합시상, 폐회사, 대회기 강하 및 페넌트기 이양, 폐회선언, 성화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회결과 여수시가 육상, 축구 등의 종목에서 총 162개의 메달(금52, 은59, 동51), 5만761점을 획득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여수시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7연패를 달성했다.

종합 2위는 4만4495점을 획득한 순천시가, 영광군이 3만5262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최우수선수상은 육상 트랙 3관왕(남자 400m, 800m, 1500m)을 달성한 황상준(33·영광군)이 수상했다.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황상준은 400m 1분10초15, 800m 2분12초97, 1500m 4분41초59의 기록을 차지했다.

장려상은 장성군 선수단이 받았으며 모범 선수단상은 영암군 선수단, 성취상에는 영광군 선수단이 이름을 올렸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부스 운영으로 지역민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고, 휠체어보장구수리센터 마련 등 선수단과 관람객을 위한 영광군의 세심한 배려에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33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는 장성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서민경 기자 minky@

조선대, 배드민턴선수권대회서 여자 단체전 준우승

조선대 배드민턴팀이 '2024 KB금융 연맹회장기 전국실업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여자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조선대 선수단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여자 단체전 8강에서 국립군산대를 상대로 3-2로 승리한 뒤 준결승에 진출했다. 30일 준결승에서 대전과학기술대를 3-2로 밀어낸 조선대는 지난 1일 결승전에서 부산외대에 1-3으로 패하며 2위를 차지했다.

조선대 김동현 감독은 "선수들의 전력을 더 강화해서 남은 경기까지 열심히 해 좋은 성적 만들어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23일 개막한 이번 대회는 오는 4일까지 경남 밀양시배드민턴경기장에서 계속된다. 조선대는 대학부 복식과 단식에서 메달 도전을 이어간다. /김진아 기자 jinggi@

즐거운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5월 매주 토-일 17:00 광주공연마루
광주상설공연
2024년 광주상설공연(5월)
일시 : 2024-05-04(토) ~ 2024-05-26(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DIVINE GWANGJU CITY BALLET
광주시립발레단 제137회 정기공연「DIVINE」
일시 : 2024-05-24(금) ~ 2024-05-25(토)
05.24.(금) 19:30
05.25.(토) 15:00, 19: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502 / 062-522-8716